

지역 매아리

정읍시, 녹두장군 맛 지도 제작

정읍시가 2019~20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녹두장군 맛 지도와 여행 숙박 지도를 제작했다.

시는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 근거해 모범음식점 및 대표음식점 순으로 맛 지도에 오를 음식점을 선정했다. 숙박 지도에는 정읍을 구석구석 소개하는 유용한 여행 정보도 담았다. 특히 맛 지도는 한눈에 보기 쉽게 구성돼 관광객들이 기호에 맞는 음식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맛 지도를 시 홈페이지와 지역 내 음식점, 숙박업소 정읍 휴게소 등 여러 곳에 비치해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에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이른 찜통더위에 발 빠른 폭염 대책 펼쳐

올여름 정읍시내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주변 등에 폭염과 한낮에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태양광 그늘막이 펼쳐진다.

시는 지난달 찜통같은 더위에 대비해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주변과 그늘이 생기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태양광 스마트그늘막을 시범 설치했다.

스마트그늘막을 시범 운영한 결과 지역 내 곳곳에서 추가 효용이 체감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6월초 1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늘막은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해 기온·풍량 등 기후변화에 따라 그늘막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자동식 차양시설이다.

풍속·온도·조도 감지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강한 바람이 불거나 기온이 낮을 때, 햇빛 조도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자동으로 접히게 된다.

특히, 태양광을 이용한 전원 공급장치 적용으로 유지 관리비가 적고 친환경적이며, 어두워지면 LED 조명이 켜지는 부가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폭염 대책기간(5월20일~9월30일)동안 스마트그늘막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생활 밀착형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폭염특보 시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폭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폭염 대비 행동요령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폭염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기업하기 좋은 정읍 '총력'

유진섭 시장, 세움 공장 방문... 임원진과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청취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유진섭 시장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유 시장은 22일 하복동 2산업단지 내 (주)세움 생산 공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어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유 시장의 현장방문은 민선 7기 핵심 시장방문인 '살맛 나는 참단 경제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유 시장은 "산도 기업이 지역 경제성장과 수출 활성화에 견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 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함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기업 현장을 정기적으로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주)세움(대표이사 이석길)은 버스와의 트러블 등 상용차용 친환경 머플러와 승용차 컨버터, 매연 저감 장치, 진공 흡음기 등을 주력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하복동 2(1494㎡) 부지에 전신인 (주)이엔이텍 사무실과 공장이 준공된 이후 상용차용 머플러 양산 체



유진섭 정읍시장이 22일 하복동 2산업단지 내 (주)세움 생산 공장을 직접 둘러보고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제를 갖췄다. 2009년 전북도 유망기업 선정, 2010년 지식경제부 부품 소재 전문기업 인증, 2011년 포스트 신장기 머플러 양산 등 성장을 거듭하며 2012년 상호를 (주)이엔이텍에서 (주)세움으로 변경했다.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사훈을 바탕으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회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상용차용 머플러 전문 생산과 대한민국의 자동차 부품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며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엄격한 소음규제 기준을 만족하는 소음기 개발 필요성과 신진 자동차업체에서 배기계 내구성능 개발이 중요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소음기 해석과 설계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석길 대표이사는 "미래 신성장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기술과 최고의 품질로 고객 감동을 줄 수 있는 회사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주꾸미 천국 칠산 앞바다 복원 '시동'... 자연 피붙고등 30만개 설치

고창군이 '주꾸미 황금어장'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2~20일 상하면 구시포에서부터 해리면 동호해역까지 900ha의 해역에 주꾸미 산란을 높이기 위해 자연 피붙고등 등을 이용한 산란시설물 30만개를 설치했다. 피붙고등 설치에는 어선 27척, 어촌계원 30명 등이 참여했다.

주꾸미가 알을 낳고 번식하게 될 피붙고등을 로프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성된 자연 산란장은 지역 어민과 함께 관리된다.

"고창 알배기 주꾸미"는 담백한 특유의 맛에 찾는 사람이 많아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고창군 해역은 옛 황금어장으로 불리었던 칠산 앞바다로 유명했으나 현재는 주꾸미 자원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창군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총 50억원을 투



고창군이 '주꾸미 황금어장'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자해 고창군 연안해역의 주꾸미 자원량을 늘리는 '주꾸미 특화형 바다목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년차 사업에 주꾸미 산란 피붙고등 17만5000개를 설치했고, 올해 2년차 들어 피붙고등 30만개를 고창군 해역에 조성해 지속적으로 설치·관리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설치한 피붙고등으로 주꾸미 유생 255만마리 방류효과, 2억5000만원

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주꾸미 산란 피붙고등이 산란기 주꾸미의 산란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황금어장으로 불렸던 칠산 앞바다의 옛 명성을 되찾고 어민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혼밥족 맞춤 밥상으로 '각광'

고창 오복농산 즉석 시래기밥, 종합컨설팅 추진

고창군의 한 식품업체가 '즉석시래기밥'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지속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고창군은 최근 국립농업과학원, 전북농업기술원 전문가들과 별미 시래기밥을 만드는 신립면 '오복농산' 영농조합법인을 찾아 '희망드림 컨설팅'을 진행했다.

'희망드림 컨설팅'은 농업인 신기술 보급사업 종료 이후 농업경영체 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을 위해 제품개발, 판매마케팅, 해외시장개척 전략 등 경영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오복농산은 지난해 간편 별미밥 특화사업에 선정돼 '즉석시래기밥'을 출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건강식을 찾

는 최근 생활 변화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전문가들은 오복농산의 온라인 유통과 판매 대책, 오프라인 판매 채널 특장(수수료, 임점절차, 판매조건) 등을 꼼꼼히 분석했다.

또 이를 종합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농가 현장 중심의 세부적인 종합컨설팅을 추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기술 시범사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과학원 기술지원팀, 전북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마케팅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상설시장 특화상품 홍콩 진출

부안군은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운영하는 "부안상설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단에서 특화상품으로 간장새우와 간장전복을 오는 25일 홍콩의 현지 고객들에게 선보이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해외수출은 부안상설시장에서 발굴한 특화상품을 국내박람회 참가를 통해 해외바이어들에게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었다.

특화상품으로 부안참방간장새우(1500개), 부안참방간장전복(1500개) 총 3000개 물량을 2만1천달러 규모로 수출했다.

부안상설시장장인회(남정수 회장)은

"전통시장에서 해외시장 판매는 이번이 처음으로 홍콩 내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국의 부안시장식품을 소개하고 우수한 맛과 품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출계약물량은 홍콩의 대형마트 3곳에서 구매업체 EUGINA LIMITED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세계적으로 건강함 먹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한류열풍으로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세계의 무대에서 실력을 마음껏 펼치도록 모든 여건을 갖춰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광역매립장 제3공구 조성공사 추진 원활

정읍시가 영과동 404-1번지 일대에 쓰레기 대란을 해소할 광역매립장 제3공구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현재 매립 중인 광역매립장 제2공구의 사용 연한이 2020년 도래됨에 따라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제3공구 매립장 조성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역매립장 제3공구 조성사업에는 총사업비 113억원(국비 34억원, 시비 79억원)이 투입된다.

정읍시 광역매립장은 1998년 최초

제1·2공구가 조성되었으며, 제1공구는 2007년 매립 사용 연한이 완료되어 현재 체육공원(야구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조성될 제3공구는 매립 용량은 232,300㎥(1단계 : 13만900㎥, 2단계 : 10만400㎥)로 연간 매립량 약 2만2500㎥를 기준으로 약 10년을 매립할 수 있다.

시는 현재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